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달러 데스크로스..해외 성장이 달러 위협
- ◇ (초점)-韓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한은 RP 시장 개입이 변수되나
- ◇ (칼럼)-정부가 주도한 4 분기 GDP, 여전한 비관론에도 반등 신호 보는 이유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에서 주민들이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로이터/알리 송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월24일 종가 기준)

| 원화 % | 최종 | 주간(%) | YTD(%) | 2019(%) | 달러 대비 % | 최종 | 주간(%) | YTD(%) | 2019(%) |
|---------|----------|--------|---------|----------|------------|-----------|---------|---------|----------|
| 달러 대비 | 1,168.7 | -0.8% | -1.1% | -3.5% | 유로 | 1.1023 | -0.6% | -1.7% | -2.3% |
| 100엔 대비 | 1,069.9 | -1.6% | -0.7% | -4.4% | 엔 | 109.27 | 0.8% | -0.6% | 0.9% |
| 유로 대비 | 1,288.8 | -0.2% | 0.4% | -1.3% | 위안 | 6.9086 | -0.4% | 0.8% | -1.3% |
| 위안 대비 | 168.55 | 0.4% | -1.7% | -2.4% | 해외주식 | 최종 | 주간(%) | YTD(%) | 2019(%) |
| 한국주식 | 최종 | 주간(%) | YTD(%) | 2019(%) | 다우존스 | 28,989.73 | -1.2% | 1.6% | 22.3% |
| 코스피 | 2,246.13 | -0.2% | 2.2% | 7.7% | 나스닥 | 9,314.91 | -0.8% | 3.8% | 35.2% |
| 코스닥 | 685.57 | -0.4% | 2.3% | -0.9% | S&P500 | 3,295.47 | -1.0% | 2.0% | 28.9% |
| 국내시장금리 | 최종(%) | 주간(bp) | YTD(bp) | 2019(bp) | MSCI APxJP | 559.12 | -2.4% | 1.2% | 15.8% |
| 국고채 3Y | 1.424% | -0.9bp | 6.4bp | -45.7bp | 미국시장금리 | 최종(%) | 주간(bp) | YTD(bp) | 2019(bp) |
| 국고채 5Y | 1.537% | -1.6bp | 5.7bp | -40.4bp | 미국채 2Y | 1.495% | -7.1bp | -6.6bp | -93.7bp |
| 국고채 10Y | 1.704% | -3.7bp | 2.1bp | -26.5bp | 미국채 10Y | 1.686% | -13.9bp | -22.4bp | -78.1bp |
| 국제상품가격 | 최종 | 주간(%) | YTD(%) | 2019(%) | CDS프리미엄 | 최종(bp) | 주간(bp) | YTD(bp) | 2019(bp) |
| 유가(WTI) | 54.19 | -7.4% | -11.3% | 34.5% | 한국 5Y | 22.5bp | 2.6bp | 1.4bp | -17.0bp |
| 금(현물) | 1,570.37 | 0.9% | 3.5% | 18.3% | 일본 5Y | 18.0bp | -0.1bp | 0.2bp | -4.0bp |
| TR상품지수 | 2,467.65 | -2.0% | -0.7% | 4.8% | 중국 5Y | 35.7bp | 6.8bp | 5.1bp | -35.8bp |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1월 27일(월)>

- 기재부,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

<28일(화)>

- 한은, 금융·실물 연계를 고려한 금융불균형 수준 평가(BOK 이슈노트)(12:00)

<29일(수)>

- 한은, 1월 소비자동향조사(06:00)
- 한은, 2019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12:00)

<30일(목)>

- 한은,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06:00)
- 한은, 2019년 1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12:00)
- 통계청, 2019년 11월 인구동향(12:00)
- 기재부,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발행실적 (17:00)

<31일(금)>

- 통계청, 2019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08:00)
- KDI 북한경제리뷰(12:00)
- 한은, 2019년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 (12:00)

<2월 1일(토)>

- 산업부, 1월 수출입 동향(09: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1월 27일(월)>

- 미국, 12월 건축허가 수정치 (22:00)
- 미국, 12월 신규주택판매 (자정)
- 중국, 홍콩, 대만 휴장

<28일(화)>

- 미국, 1월 달러스런은 제조업지수 (0:30)
-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회의 (~29일)
- 미국, 12월 내구재주문 (22:30)

- 미국, 11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23:00)
- 미국, 1월 소비자신뢰지수 (자정)
- 중국, 홍콩, 대만 휴장

<29일(수)>

- 일본은행(BOJ) 1월 20-21일 정책위원 의견 요약본 공개(8:50)
- 일본, 1월 소비자신뢰지수 (14:00)
- 유로존, 12월 총유동성(M3) 증가율 (18:00)
- 유로존, 12월 가계대출 (18: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미국, 12월 도·소매재고 잠정치 (22:30)
- 미국, 12월 잠정주택판매 (자정)
- 중국, 대만 휴장

<30일(목)>

-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발표(4:00)
- 유로존, 1월 기업환경지수 (19:00)
- 유로존, 1월 경기체감지수 (19:00)
- 유로존, 1월 소비자신뢰지수 확정치 (19:00)
- 유로존, 12월 실업률 (19:00)
- 영란은행(BOE) 통화정책회의 후 금리발표 (21:00)
- 미국, 4분기 GDP 잠정치 (22:3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 중국 휴장

<31일(금)>

- 일본, 1월 도쿄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8:30)
- 일본, 12월 실업률 (8:30)
- 일본, 12월 산업생산 잠정치 (8:50)
- 일본, 12월 소매판매 (8:50)
- 일본, 12월 건축주문 (미정)
- 중국, 1월 NBS 제조업·비제조업 PMI (10:00)
- 일본, 12월 주택착공 (14:00)
- 유로존,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19:00)
- 유로존, 4분기 GDP 잠정치 (19:00)
- 미국, 12월 개인소득 (22:30)
- 미국, 4분기 고용비용 (22:30)
- 미국, 1월 시카고 PMI (23:45)
- 미국, 1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 (자정)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이번 주 시장 전망은 내일 레피니티브 단말기로만 송고합니다.>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분석)-달러 데스크로스..해외 성장이 달러 위협

뉴욕, (로이터) - 달러에 어두운 그림자가 늘면서 기업 이익을 압박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화나게 했던 지난 2년간의 랠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선물 시장에서 달러 낙관론은 1년반여래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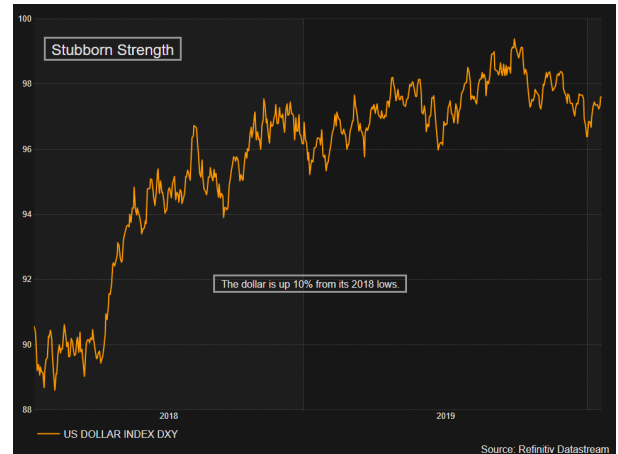
BAML 애널리스트들은 2019년 마지막 날 달러가 소위 말하는 '데스 크로스'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데스 크로스는 50일 이동평균이 200일 이동평균 아래로 떨어지는 약세장 신호다. 지난 1980년 이후 이같은 신호가 나타나면 8번 중 7번은 얼마간의 달러 약세가 뒤따랐다.

마크 맥코믹 TD 증권 글로벌 전략팀장은 글로벌 무역과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더 선호,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에서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는 치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불확실성 감소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전에는 꺼렸던 리스크를 취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의 달러의 중심적 역할 때문에 달러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에게 모두 중요한 일이다. 지난 몇 년간 달러는 연준의 도비시한 전환, 미국 성장 둔화 우려 등 많은 부정적 요인들을 극복해 왔다.

작년 ICE 달러 지수는 0.2% 상승했고 2018년 저점에서는 10% 상승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UBS, 슈로더, 소시에테제네랄은 올해 달러 하락을 점치고 있다. 더블라인캐피탈의 제프리 군드라흐도 투자자들에게 달러의 다음 큰 움직임은 하락일 것이라고 말했다.

달러가 거래 레인지 상단에 오래 머무르면서 프록터앤갬블, 월풀 등 다국적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트럼프 역시 달러 강세가 자국 생산품의 해외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 등으로 달러 강세에 불만을 드러냈다.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들 통화 대비 달러 지수는 현재 사상 최고치 부근을 가리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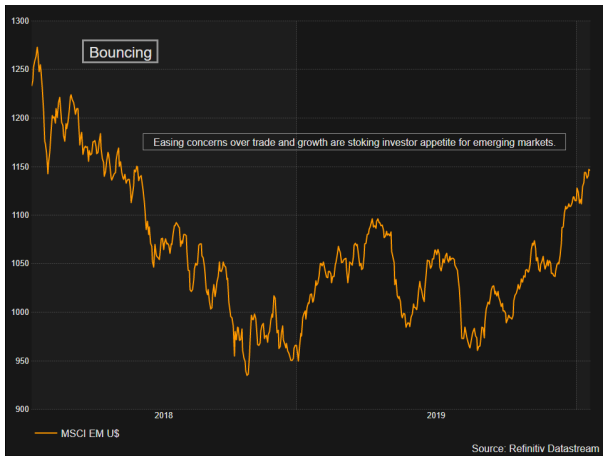
몸트칠 포자를리브 BNP 자산운용 외환팀장은 달러 추세가 곧 뒤집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달러가 유로, 엔, 호주달러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대 국가들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는 가운데 해당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올려 금리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몇몇 중앙은행들은 이미 덜 도비시한 입장으로 바뀐 것처럼 보인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11월 회의에서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지난 달 스웨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영역에서 처음으로 0%로 올렸다.

유럽중앙은행도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가 끝났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리차드벤슨 밀레니엄글로벌인베스트먼트 수석투자담당은 멕시코 페소, 인도 루피 등 신흥시장 통화들

을 선호한다면, 글로벌 성장 회복에 따라 앞으로 개발도상국 통화들이 달러 대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초점)-韓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한은 RP 시장 개입이 변수되나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금융 당국이 오는 6월까지 콜 금리와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 중 하나를 국내 무위험 지표금리(RFR)로 선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 참가자들의 중지를 모으는 데 난관이 예상된다.

당초 거래량 측면에서 콜 금리를 압도하며 유력한 지표금리 후보로 꼽혔던 RP 금리가 최근 불안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초 나타난 혼란으로 RP 시장이 유동성 위험에 취약하다는 점이 부각된 데다 금리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 향후 무위험 지표금리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한은 개입 없이 바로 못 서는 RP 시장..지표금리 한계 부각

금융위원회는 2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주요국 사례를 감안해 익일물(만기 1일) 콜 금리 또는 익일물 RP 금리를 국내 무위험지표 후보 금리로 고려, 심사할 예정"이라며 "향후 콜 금리·RP 금리에 대한 평가 및 시장 참가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6월까지

국내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무위험 지표금리는 규제 당국과 한은, 은행과 증권사 등 시장 참여자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시장에선 RP 금리가 무위험 지표금리로 유력하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콜 거래량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10조 6000억원 수준까지 줄어 같은 기간 89조 6000억원에 달했던 RP 거래량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현재 지표금리로 사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금융 당국이 대체하려는 이유가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는 유동성 확보라는 점을 감안하면 콜 금리보다 RP 금리가 더 적합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금융 당국이 그동안 정책적으로 콜 거래를 제한했던 만큼 콜 금리를 지표금리로 사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RP 금리도 금리 안정성 측면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지표금리는 외부 여건 변화에 반응해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아야 안정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데, RP 금리는 주기적으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한은의 개입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면서 RP 시장의 자생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올해 초 일부 RP 차입 기관들의 차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해 RP 시장에 비상이 걸렸을 때도 한은은 RP 매입을 전제로 시중은행들에 자금 공급을 권유하며 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데 주력했다.

일부에선 한은이 지난해 연말부터 RP 금리가 1.40%를 넘지 못하도록 사실상 창구지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금시장의 수급이 꼬이며 RP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려 할 때마다 한은이 나서다 보니 RP 매도자들의 익스포저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하지만 한은은 자금시장의 수급이 꼬였을 때 중앙은행이 나서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 RP 금리

는 급등하는데 거래는 이뤄지지 않는 '패닉 장'이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한다.

▲RP 담보, 국고채·통안채 한정 등 안정화 방안 모색..규제 효과도 지켜봐야

RP 금리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보니 지표금리 선정에 따른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중은행의 한 자금담당자는 "미국이나 유럽은 대형 금융사 위주의 레포 딜러가 따로 있고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돈을 나눠 주는데 우리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일대일로 거래를 한다"며 "꼭 어느 쪽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처럼 익일 물 비중이 과도하게 큰 나라에서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상당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CD 금리 담합 논란 때문에 은행들이 지난 몇 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RP 금리가 크게 올라 한은이 개입할 경우 관련 포지션을 쥐고 있는 기관들마다 다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를 어떻게 할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인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달 초 발표한 '주요국 지표금리 개혁 추진 경과 및 국내 시사점'이라는 논문에서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RP 금리를 지표금리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의미에서 올해 중에 시행될 예정인 RP 시장 안정성 제고 방안의 성공 여부가 RP 금리를 지표금리로 고려하기 위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과 한은은 RP 금리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를 국고채, 통안채로 한정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은이 공개시장 운영을 위해 단기자금시장에 개입하는 것과 지표금리 산정과는 별개라고 봤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단기자금시장이 흔들리는데 한은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RP 담보로 국채, 통안채만 이용하면 금리 변동성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개입과 지표금리의 투명성 문제는 외국에서도 제기됐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은의 공개시장정책이 오히려 RP 금리를 안정시키는 만큼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일 수 있다고 들었다"며 "한은이 중간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인 만큼 직접적인 조작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콜 금리의 경우 RP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가 덜한데 시장 규모가 작다는 문제가 있다"며 "아무래도 시장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칼럼)-정부가 주도한 4분기 GDP, 여전히 비관론에도 반등 신호 보는 이유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지난해 1월 바로 오늘이다. 한국은행이 2018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했던 날이 떠오른다. 당시 한은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GDP 증가율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2018년 4분기 GDP는 전기 대비 1.0% 성장해 같은 해 1분기(1.0%) 이후 3분기 만에 1%대로 올라섰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3.1% 성장해 2017년 3분기(3.8%) 이후 가장 높았다. 민간 및 정부 소비지출이 증가하고 건설 및 설비투자가 모두 증가로 돌아왔다.

하지만 당시 발표 자료를 세부적으로 뜯어보며 불안감이 컸던 기억이 난다. 특히 성장 기여도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2018년 3분기에 -0.1%p였던 전체 GDP에 대한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4분기에 1.1%p로 급증했다. 정부 소비와 총 고정자본 형성에서 정부 지출 비중을 합산한 1.1%p의 성장기여도는 2009년 1분기에 1.9%p를 기록한 이후 최대였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끌어 올린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다음 분기인 2019년 1분기 'GDP 쇼크'로 이어

졌다. 지난해 1분기 GDP는 전기 대비 0.4% 감소해 2008년 4분기(-3.3%) 이후 10여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분기 지표 급락에 한은 조사국의 실무 담당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정부 재정지출의 성장 기여도가 악화된 것을 '서프라이즈'의 이유로 내놓을 뿐이었다.

한은은 부라부라 성장을 전망치를 수정하며 국내 경제가 부진에 빠졌다고 인정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부문의 부진 폭이 한은의 예상을 크게 상회한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격화 흐름 속에 글로벌 가치사슬이 악화되며 교역량이 줄었고, 기업들은 투자를 유보하며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라는 판단을 사후적으로 내렸다.

민간 소비와 투자의 개선 없이 정부 지출에 의존한 반짝 반등은 더 큰 추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지난 한 해 내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집행을 독려하며 GDP 기여도를 1.2%p까지 끌어올렸던 2분기에 민간의 성장 기여도는 -0.2%p에 그쳤고 성장률은 전기비 1%를 기록했다. 하지만 3분기에 정부 지출의 기여도가 0.2%p로 줄어들자 GDP도 0.4%로 쪼그라들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해 국내 경제는 2.0% 성장하는 데 그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민간 소비 성장률도 1.9%에 그쳐 2013년(1.7%) 이후 가장 낮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8.15, 3.3% 감소했다. 수출은 1.5% 성장하는 데 그쳤다.

▲정부 지출 확대 후폭풍, 올해도 이어질까

22일 한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GDP는 전기 대비 1.2% 성장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 0.8%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1.0%p를 차지해 사실상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1%대 성장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전력투구했으리라는 점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의문은 지난 1분기와 3분기에 나타났던 '정부 지출 확대 후폭풍'이 이번에도 반복될 것이냐다.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가 견조하게 회복되지 않으면 GDP가 다시 한번 고꾸라질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건설 투자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지난해 건설 투자는 2016년과 2017년의 호황에 따른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 수요 왜곡 현상이 이어지면서 올해도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올인하면서 향후 건설 투자가 더 위축될 가능성도 커졌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요인이다. 중국 당국은 여전히 '통제가 가능하다'며 불안감 확산을 경계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자칫 지난 2003년 아시아를 휩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베이징대학교 중국경제연구센터가 내놓은 지난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사스로 인한 중국 경제 피해액은 253억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수출 지표의 개선 전망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분위기 반전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지난해 1월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작년엔 반도체 슈퍼 사이클 때문에 2018년 수출이 예상을 크게 상회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를 반영해야 했다. 올해는 반도체 업황이 지난해 최악이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를 반영해야 한다.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때 통상 5~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수출 지표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부터 민간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부문의 투자가 개선되면 IT 부문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지난해 1분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4월 총선 전에 재정집행에 속도를 내리라는 점에서 1분기 지표 급락 가능성도 낮은 게 사실이다.

민간 소비는 낙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단 심리지수는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소비심리

지수가 지난달 소폭 하락했지만 아직 기준지수 100 위에 있고 최근 주가 급등으로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경기지표가 반등한다고 해서 흥분할 일은 아니다.

GDP 갭은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고 반도체 부문을 제외하면 딱히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도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GDP 갭 마이너스가 이어지면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것을 경기의 기조적 반등이라고 칭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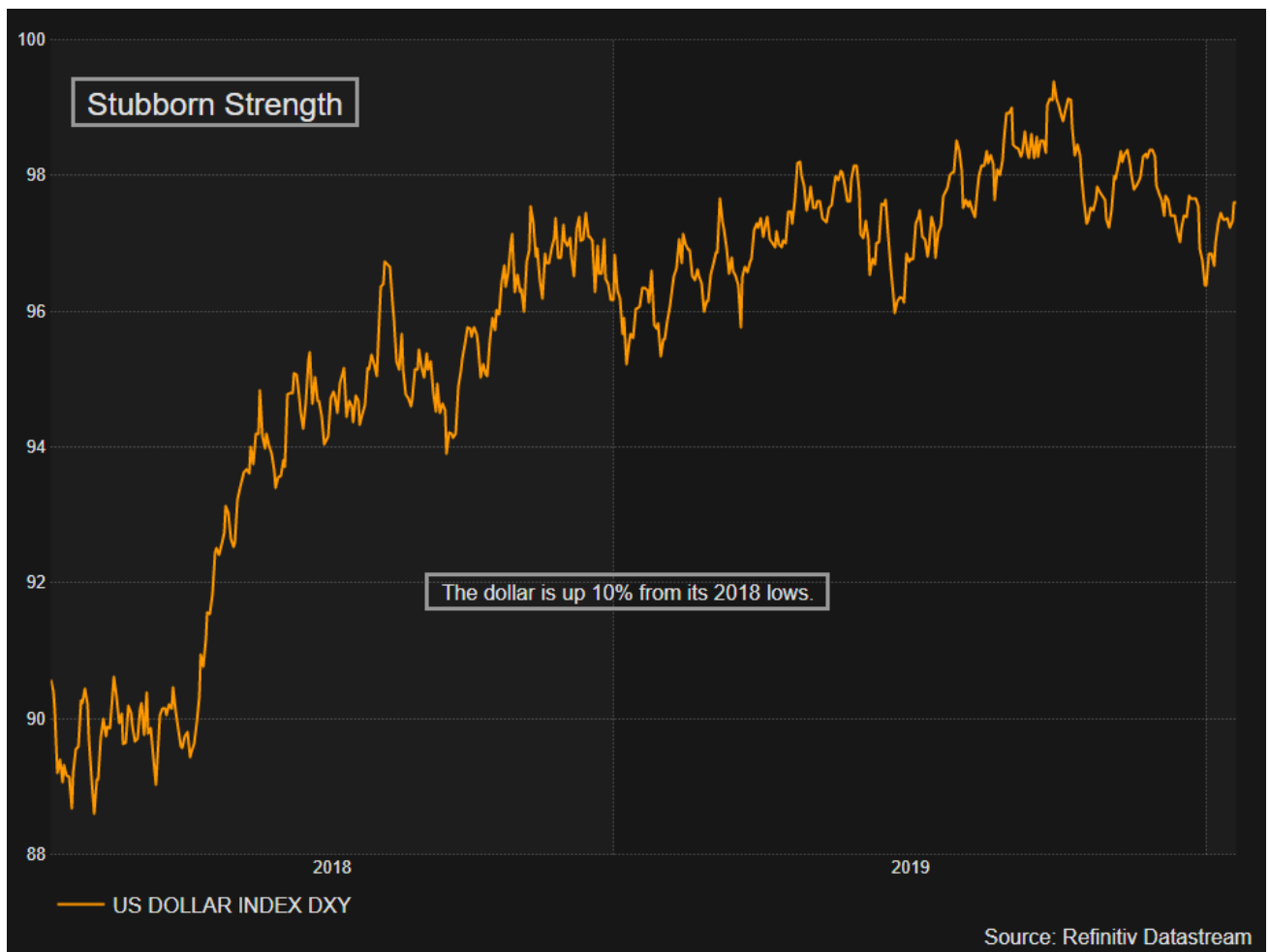
냉정하게 보면 국내경제는 현재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수준이다. 향후 국내 경제가 실질적인 반등을 할 수 있겠느냐 여부는 최소한 상반기 지표를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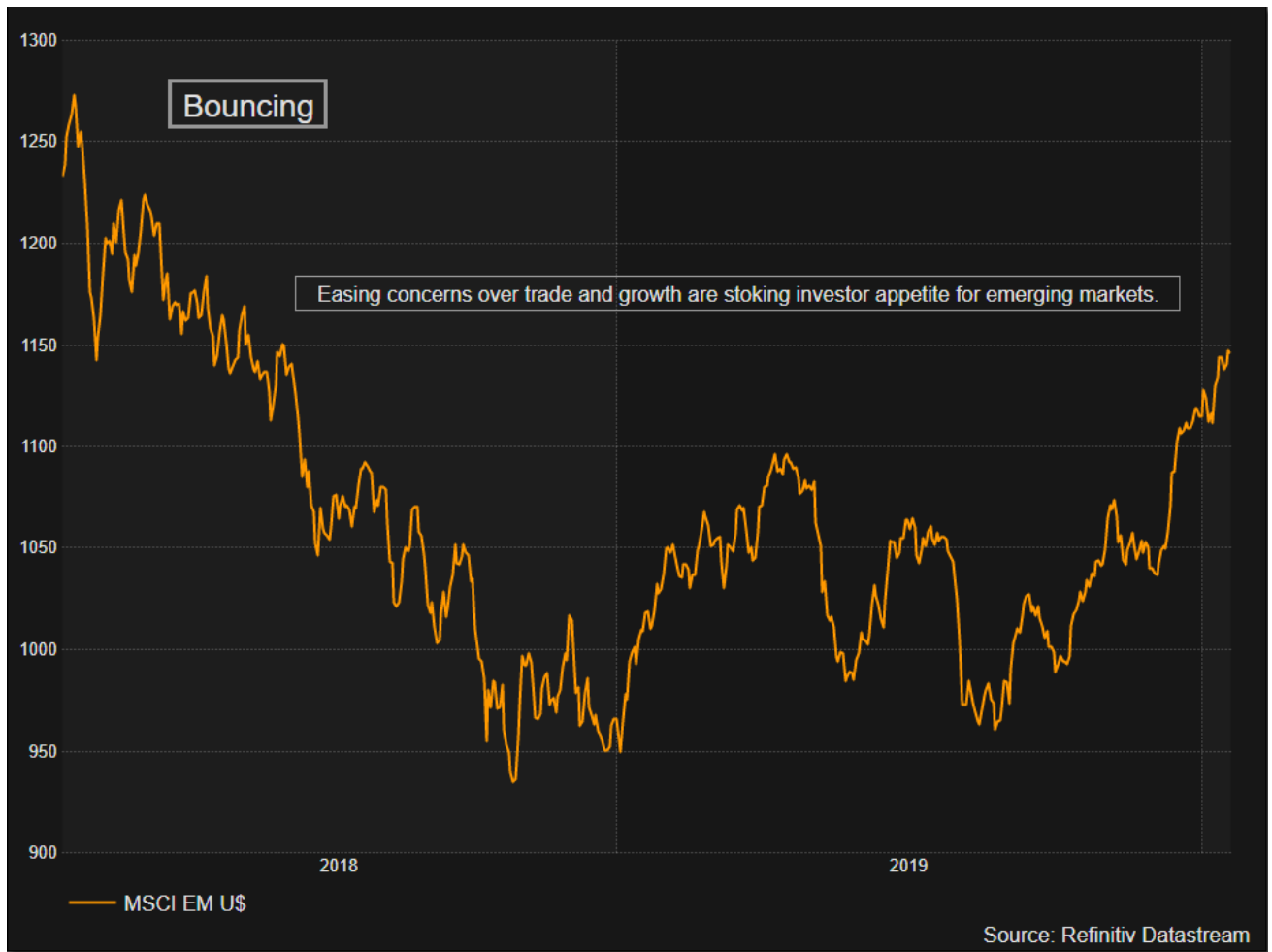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